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한다(누가복음 강해 14)

성경말씀: 눅5:27-39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주님의 영이 임하시매 그분께서 1.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침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 선포,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함, 6. 주님께서 받아 주시는 기쁨의 해 선포

지난 시간: 나병을 고쳐 주심, 죄들을 용서하심,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한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새 일을 새롭게 바르게 하게 하시는 일

유대교

유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 500년쯤 지나서 모세 시대에 시내 산에 율법, 출19:5-6

십계명, 성막, 성전 예배, 일곱 명절, 안식일, 안식년, 희년, 희생예물(죄, 범법, 화평, 음식, 자원) 시민법, 이런 복합 제도를 유대교라고 하며 여기의 중심은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은 유대교는 낡은 것으로 사라져야 하고 기독교 혹은 기독교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임을 보여 주심

마태를 부르심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 세금을 충실히 거두고 있었음(27). 세금 부과율은 어느 정도 세금 징수자(세리)에 따라 달랐다. 그래서 세리는 원하면 쉽게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아마 세리의 세금 징수에는 늘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눅3:12-13). 그러나 정직하게 거둔다 해도 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비쳐져서 유대인들이 싫어함. 죄인으로 매도함

여기의 레위는 세금을 도둑질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럼에도 창녀와 세리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는 죄인으로 평가되었다. 이 말은 곧 그는 왕따를 당해 친구들이 없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는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권능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이다. 다만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감히 그분께 갈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를 찾아오시고는 그의 이름을 마태(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어 주심(27).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다. 그리고 과분한 복을 주신다.

이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름(28).

그리고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 자기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29).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림: “어찌 너희가 창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음, 종교 지도자들은 기존 틀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음 사랑침례교회의 가치: 신약교회를 한다. 영혼의 자유, 목사의 제사장 탈피, 헌금의 원리(십일조)

이런 것이 그리 어려운가? 아니다. 그런데 왜 못하는가?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서 예수님은 기존의 낡은 틀을 깨뜨리는 분이시다. 죄인으로 정죄하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을 찾아와 구원하시고 12제자의 반열에 넣어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신다(마19:28).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이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네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신다.

1. 나는 의사로 죄 병을 고치러 왔다

기존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와 세리, 창녀를 정죄 받은 죄인으로 보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병자로 보심, 병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미 12-16절의 나병 환자 치료, 17-26절의 마비병 환자 치료, 죄들의 용서 가능함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우리는 전통대로 율법을 지키므로 안전하고 너희는 죄인이다.

겉을 보면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마23:25-28). 그러나 그들 역시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병이 걸려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엡2:1-2).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부터 이스라엘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다.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진단을 내림(렘6:14), 조금 고치고는 다 고쳤다고 함 이 시대에도 오순절/은사주의 목사들이 거짓 진단을 내린다. 영이 피폐한데도 땅에서의 번영 신학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계3:17-18)

좋은 목사/친구는 바르게 진단해 주는 사람, 좋은 약은 씬

세상 부귀가 먼지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먼지이다. 죄, 사망, 둘째 사망
진단받은 뒤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가야 한다.

그리고 유일한 치료약인 십자가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아야 한다(히9:22).

주님의 말씀(31-32), 우리는 어떤가? 한 때 병든 자들이었는가, 온전한 자들이었는가?

눈먼 자들이었는가, 눈 뜬 자들이었는가? 예수님을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오셨다.

2. 나는 신랑으로 기쁨을 주러 왔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의 모임을 싫어했고 동시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우리 주님은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가는 곳에는 늘 기쁨이 넘쳤다.

종교는 금욕과 고행을 요구한다(천주교, 불교, 이슬람, 각종 이단들, 금요 집회, 철야, 40일 금식,

계룡산) 등.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정상적인 생활과 기쁨을 준다. 신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싫다. 틀에 박힌 근엄함, 예배 형식, 기쁨이 있는가?(예배, 헌금, 섬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1주일 동안 진행됨. 말 그대로 기쁨이 흘러넘침

하나님께서서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기뻐하시고 신랑은 군대의 의무도 1년간 면제해 줌(신24:5)
물론 유대인 제자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빼앗기고 울며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랑이 정혼한 뒤 지금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 집에
계신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부활/휴거를 통해 자신의 신부를 모두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전4:13, 18,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의 신부가 된 자들을 종교인들처럼

고행으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교회에 오면, 어디든지 형제/자매들이 모이면 기뻐야 한다.

3. 나는 새 옷을 주러 왔다.

옷이 낡으면 구멍이 난다. 낡은 옷의 구멍을 새 형질으로 기우면 둘 다 망가짐.

a 새 옷이 강하므로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놓음

b. 새 옷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음

c. 기독교는 유대교의 구멍을 메우는 종교가 아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 틀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보혈이 옛 사람의 뽕 뚫린 구멍을 메꾸어 주는 것이 아니다.

고후5:17, 새로운 창조물, 모든 것이 새롭게 됨, 땀땀이 아니라, 아예 새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만 바꾸고 모든 것은 과거 틀 그대로 하면 땀땀이다(여러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여러 목사님들이 새롭게 교회를 하기 원한다. 그러려면 땀땀이 아니라 완전히 다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신약 교회이다. 유대교의 연장, 수정, 보완, 땀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4. 가죽부대

고대 중동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잘 다듬은 뒤 다리가 있던 부분을 꿰매서 부대로 사용했으며
여기서 목 부분은 부대에 액체를 넣거나 빼는 데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쉽게 이런 부대를 메고 다녔다.

부대가 오래되면 딱딱해지면서 망가지기 쉬움

여기에 새 포도즙을 넣으면 가스가 생기면서 가죽 부대가 터짐. 포도즙과 부대 모두 망가짐(32)

그러므로 새 포도즙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33).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 옛 것이 좋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 것에 안주하려 함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교회 운영, 섬김 등 모든 것 상식과 이성).

예수님은 낡은 가죽부대인 유대교 시스템의 종말이 올 것을 예고하셨다(히8:13; 9:1).

결국 유대교는 AD70년에 망함.

유대교의 율법: 도덕법, 의식법(예수님 성취), 시민법(사라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시대(벧전2:5, 9)

목사가 성도들을 강제로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니다(고후1:21).

5. 요약: 죄인들 고침, 신랑으로 기쁨, 새 옷, 새 포도즙은 새 가죽 부대에